

인도네시아에서 보내 드리는

3 월 선교편지

MAR 2, 2019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 : 5 - 6)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2019년에도 정말 바쁘게 매일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월 한달 동안만 국내선 항공기를 10번이나 타고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순간 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을 전하고자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1. 말랑 UKCW 기독교종합대학을 위하여 계속 기도 바랍니다.

말랑 UKCW 기독교종합대학은 3월 중순 새로운 학기 개강을 앞두고 모든 교직원들과 총장단이 하나가 되어 새로 대학을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학기에 더욱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대학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속히 이루어 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UKCW 학생 2명 (Dindha, Mitha) 을 한국 숙명여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중 Mitha는 아직 모든 가족, 부모와 5남매 모두들 이슬람이고 Mitha 역시 기독교인을 이슬람으로 전향시키는데 아주 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3년 전 기독교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슬람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성경의 모순점을 알아볼려고 성경을 읽던 중 주님을 만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감금되기도 하였고 쫓겨나기도 하였지만, 확신 속에 신앙을 지키며 UKCW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금번에 자기가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주신 거라고 가족들에

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인 Dindha 는 2019년 외국인 한국유학생 수 백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한국 숙명 여대로 보냈던 학생들 중 2명은 지난 2월 26일 숙명여대에서 졸업을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섬기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이 뿌듯해 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UKCW 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2. 2019년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사역과 한센인분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과 기도와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의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 분들인 이들 한센인 분들에게 전해져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앞당겨 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에도 계속되는 숨바섬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2019 년 첫번째 숨바섬 사역을 2 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우기 중이어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 많은 지역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걸어 산을 넘어 마을들을 찾아다니었지만 반가운 얼굴들과 예배의 뜨거움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들이 건축 중이어, 바닥 타일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의자도 없는 곳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 더욱 더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이제 제 13 호, 14 호, 15 호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아직 한참 공사 중인 제 16 호 라망깃마을, 제 17 호 소알마을 교회 건축도 6 월까지 모두 완공하게 되면, 지난 11 년동안 동숨바 지역에 17 개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 드립니다. 17 개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모든 교회에 현지 사역자들을 전담시키었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오토바이들을 지원해 주었고, 또 그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 부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동역자 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기도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감사 드립니다. 이제 올해에는 서숨바 지역 3 개

마을에 새로운 교회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숨바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기도하며 함께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4. 숨바섬 어린이 Andreas 의 안구 삽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숨바섬 어린이 Andreas 를 발리로 데리고 나와 안구 종양제거 수술과 안구 삽입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차 안구 종양제거 수술은 잘 되었는데 2 차 안구 삽입 수술은 실패하였습니다. 발리에 있는 3 군데 병원을 모두 다니며 어떻게든 새로운 안구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으나, 얼굴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카르타에 있는 큰 병원들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자카르타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일단 숨바섬으로 돌려 보내었고 이제 2 차 수술 가능한 병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Andreas 가 사는 숨바섬 마을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입니다. Andreas 수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을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2 차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만나 Andreas 에게 새로운 안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멀쩡하던 아래 앞니 두개가 뿌러져 치과 치료를 받으러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치료와 한국에서의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들과 사업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9 년 3 월 2 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